

삼성코닝정밀유리, 따라올 곳 없다!

천안 제2사업장 준공 ... 2008년까지 용해로 34개 갖춰 세계 1위 유리

TFT-LCD(초박막액정표시장치) 기판유리 전문생산기업인 삼성코닝정밀유리가 3월28일 충남 천안에 위치한 제2사업장 준공식을 가졌다.

준공식에는 삼성코닝정밀유리 이석재 사장과 미국 코닝 제임스 호튼 회장, 삼성전자 윤종용 부회장, 삼성코닝 송용로 사장, 삼성SDI 김순택 사장, 삼성전기 강호문 사장 등 300명이 참석했다.

천안 사업장은 1996년 가동을 시작한 구미 사업장에 이은 삼성코닝정밀유리의 2번째 생산 거점이다.

삼성코닝정밀유리는 천안 사업장에 추가 증설작업을 계속해 2008년까지 28개 용해로를 갖추어 총 34개로 세계 최대 생산능력을 보유할 계획이다.

현재 천안 사업장은 삼성전자와 LG필립스LCD, BOE하이디스 등 주요고객사의 대형화 요구에 발맞춰 2개 용해로에서 세계 최대 크기인 5세대 기판유리(1100mmX1300mm)를 생산하고 있으며, 현재 7세대(1850X2100) 기판유리를 개발중에 있다. 2002년 말부터 2004년까지 6000억~8000억원을 투자해 2004년 말 총 9개 용해로를 갖출 예정이다.

삼성코닝정밀유리는 경쟁기업들에 비해 기술력이 월등해 품질과 원가 측면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지속적인 설비투자와 함께 연구개발에도 매출액의 5% 이상 투자해 세계 시장 1위를 지속하겠다는 포부를 내비쳤다. 또 앞으로의 시장 추이에 따라 해외 진출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와 미국 코닝(Corning Inc.)의 합작법인인 삼성코닝정밀유리는 2002년 세계 TFT-LCD 기판유리 시장에서 점유율 25%로 1위를 차지했으며, 매출액 4168억원에 순이익만 1868억원을 올렸다.

2003년에는 매출 6000억원에 30% 정도 순이익이 날 것으로 예상되며, 2006년 매출 1조원을 달성할 계획이다.

<Chemical Journal 2003/04/03>